

신술위 | 책임연구원 (제 7161)

- 주요 뉴스: 관세분쟁 재점화 조짐 EU,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시 보복 예고 등
  - 미국 5월 ISM 제조업 PMI, 작년 11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
  - 굴즈비 시카고 연은 총재, 무역정책 불확실성 해소시 금리인하 가능성 증가
  - 러-우 2차 협상 큰 성과 없이 종료, 교착 장기화 우려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관세분쟁, ISM 제조업PMI, 미국 채권시장 불안 등이 영향
  - 미국 주가 상승[+0.4%], 달러화 약세[-0.6%], 미국 금리 상승[+4bp]
 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관세분쟁 긴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랠리에 힘입어 상승  
유로 Stoxx600은 관세분쟁 우려에 하락
  - 환율: 달러화 지수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및 채권 시장 불안 우려 등으로 하락  
유로화 가치는 0.8% 상승, 엔화 가치는 0.9% 상승
  - 금리: 미국(10년물)은 채무불이행 관련 불안이 지속되며 상승  
독일 국채금리는 금주 금리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2bp 상승

※ 뉴욕 1M NDF 증가 1374.1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376.9원, +0.28% 상승). 한국 CDS 상승

|    |      | 6/2일   | 5/30일    | 전일대비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6/2일   | 5/30일  | 전일대비   |
|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주가 | 미국   | 5935.9 | 5911.7   | 0.41%  | 국채<br>금리<br>10y | 미국    | 4.44   | 4.4    | 4bp    |
|    | 유럽   | 547.9  | 548.7    | -0.14% |                 | 독일    | 2.52   | 2.5    | 2bp    |
|    | 중국   | 휴장     | 3347.487 | -      |                 | 영국    | 5      | 5      | 2bp    |
|    | 일본   | 37,471 | 37,965   | -1.30% | CDS<br>5y       | 한국    | 29bp   | 29bp   | 0bp    |
|    | 한국   | 2699.0 | 2697.67  | 0.05%  |                 | 중국    | 52bp   | 51bp   | 1bp    |
|    | 달러지수 | 98.70  | 99.33    | -0.64% | 위험<br>지표        | EMBI+ | 383    | 385    | -2bp   |
| 환율 | 유로화  | 1.1441 | 1.1347   | 0.83%  |                 | VIX   | 18.36  | 18.57  | -1.13% |
|    | 엔화   | 142.71 | 144.02   | 0.92%  |                 | WTI유  | 62.52  | 60.79  | 2.85%  |
|    | 위안화  | 휴장     | 7.199    | -      | 원자재             | 구리    | 485.9  | 467.8  | 3.87%  |
|    | 원화   | 1373.1 | 1380.1   | 0.51%  |                 | 금     | 3381.6 | 3289.3 | 2.81%  |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## 금일의 포커스

### ■ 관세분쟁 재점화 조짐. EU, 미국 철강·알루미늄 관세 인상 시 보복 예고 등

- EU는 미국이 철강·알루미늄 관세를 25%에서 50%로 인상할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관세분쟁 합의 노력을 저해한다고 비판. 해당 조치가 단행될 경우 7월 14일 또는 그보다 이른 시점으로 보복조치를 앞당길 수 있다고 경고
- 한편, EU는 중국 의료기기 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통과. 이는 중국이 외국 기업을 배제해온 관행에 대한 대응으로, 향후 EU-중국 간 긴장 고조 가능성을 내포
- 중국 상무부는 중국이 무역합의를 위반했다는 미국 측 주장에 반박하며, 오히려 시칩 수출 통제, 유학생 비자 취소 등 미국의 차별적 조치가 제네바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
  - 추가로 미국이 일방적인 행보를 고수하고 중국의 국익을 지속 훼손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
- 이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이번 주 중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전화통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함에 따라 시장 불안이 다소 완화
- JPMorgan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미·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으로 최근 주가 랠리가 제약될 수 있다고 전망
  - RSM US는 관세분쟁으로 인해 물자를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병목 현상 및 공급 부족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

## 글로벌 동향 및 이슈

### ■ 미국 5월 ISM 제조업 PMI, 작년 11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

- 5월 ISM 제조업 PMI는 48.5로, 전월(48.7)보다 하락하며 예상치(49.5)를 하회. 경기 위축을 가늠하는 기준선인 50을 3개월 연속 하회
- 시장에서는 최근 관세분쟁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에 주목. 기업들이 관세분쟁에 대비한 비상대책(contingency plans) 수립에 치중하게 되며 장기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

### ■ 굴즈비 시카고 연은 총재, 무역정책 불확실성 해소시 금리인하 가능성 증가

- 굴즈비 연은 총재는 현재 미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양호하다고 평가하며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금리인하를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
- 다만, 관세분쟁이 경제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이 아직은 예상보다 크지 않지만 이 같은 흐름이 향후 1~2개월간 계속될지는 알 수 없다고 경고

### ■ 러우 2차 협상 큰 성과 없이 종료. 교착 장기화 우려

-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스탄불 2차 회담에서도 핵심 조건에서 이견 조율에 실패.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및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 포기 등 기존의 요구를 제안하며 우크라이나의 30일 전면 휴전안을 거부. 포로 및 시신 맞교환에는 합의

### ■ 폴란드 대선, 親트럼프 성향의 나브로츠키 당선

- 폴란드 대선 결선에서 야권 보수당의 지지를 받은 나브로츠키 후보가 50.9%를 득표하며 대통령에 당선.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안보 불안 대응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 강화, 유럽 민협정 탈퇴 등을 주장
- 한편, 현재 여당 소속의 투스크 총리가 집권 중으로 분점정부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가운데, 투스크 총리는 대선 패배 이후 내각 결속을 다지기 위해 신임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표명

### ■ OECD, 공격적인 리쇼어링 단행시 글로벌 교역 규모 18% 위축 우려

- OECD 추정 결과, 리쇼어링이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 글로벌 무역 규모가 정상적인 무역체제 대비 최대 18% 줄어들 수 있으며, 일부 국가 GDP는 12% 감소할 가능성

## 주요 경제·금융 이벤트

### ■ 주요 경제 이벤트(6/3~4일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4월 JOLTs 구인건수(전월 719.2만건), 4월 공장수주 증가율<sub>mom</sub>(예상 -3.1% 전월 4.3%), 보스틱 연은 총재 연설, 캐나다 통화정책회의 등
- 유로존 5월 CPI 상승률<sub>yoy</sub>(예상 2.0%, 전월 2.2%), 근원CPI 상승률(예상 2.7%, 전월 2.4%), 4월 실업률(예상 6.2%, 전월 6.2%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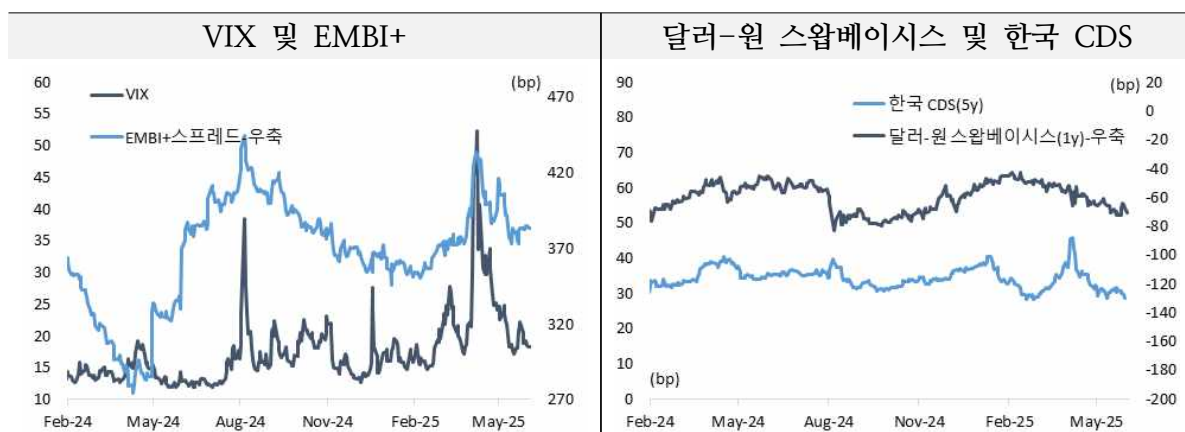
## 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46, E-mail [swshin@kcif.or.kr](mailto:swshin@kcif.or.kr)